



2011년 3월 28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 (1) 박근혜 영향력 2위, 신뢰도 1위, 2010년 비해 강세
- (2) 이명박 영향력 1위 점수는 6.36→ 6.25로 하락, 신뢰도는 4.92→4.93 정체
- (3) 여권 추격자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1년 전에 영향력, 신뢰도 평가 급하락
- (4) 야권에선 손학규 영향력5위, 신뢰도 5위, 유시민 영향력 7위 신뢰도 5위

【차기 대선레이스 본격화되나?】

- (1)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와 지지이유 :朴 36.9%> 유 10.6% > 오 8.1% > 한 6.4%
- 여당 주자는 인물 요인, 손학규는 정당요인, 유시민은 이념이 지지 요인
- (2)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5.0%> 오세훈 12.1%> 김문수 9.9%> 정몽준 6.2%
- (3)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 손학규 21.1%> 유시민 18.8%> 한명숙 11.9% 순

【일본 지진과 한국 원전 안전도】

- (1) 일본지진의 한국경제 파장: 긍정 효과 33.7%, 그저 그렇다 22.8%, 부정 효과 41.4%
- (2) 일본 지진 성금 모금엔 공감 크지만 한일관계 전망은 신중론 커
- (3) 한국 원전은 안전한가? “안전하다” 41.1% 대 “안전하지 않다” 52.1%
- “한국 원전 안전하다” : MB 지지층 50.3% 대 MB 비판층 32.5%

【정기 정치 지표】

-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4.6%,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
- (2) 한나라당지지 38.4%, 민주 22.4%, 민노 4.3%, 국민참여 3.4%, 선진 2.3% 순
- (3) 주관적 자기이념 평균 5.2, 진보 23.9%, 중도 40.4%, 보수 29.7%

【보도 자료용 보고서 초안임】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박근혜 영향력 4위→2위, 신뢰도 1위 유지

이명박 영향력 1위, 점수는 6.36→ 6.25 ↓, 신뢰도는 4위→2위로, 점수는 4.92→4.93

박근혜 영향력 2위, 신뢰도 1위, 점수도 영향력 5.69→6.06 상승, 신뢰도 5.40→5.68 향상

- 2010년에 이어 대통령과 가장 영향력이 크고 차기 대선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정치인 10인을 선정하여 전국 성인남녀 800명에게 이들의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해 각각 0(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까지의 척도(5점은 중간)로 평가하게 했다.
-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영향력에서 6.25점으로 1위, 신뢰도에서는 4.93점으로 2위에 머물렀다. 2010년 조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향력 평가에서 6.36점으로 1위, 신뢰도 평가에서 4.92점으로 4위였다. 작년에 비해 영향력 평가점수가 0.11점이 낮아졌고, 신뢰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뢰도 순위가 오른 것은 작년 조사에서 강세를 보였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신뢰도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 반면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의 조사에서 영향력에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에 밀려 4위까지 밀려났던 박근혜 전대표는 2011년 조사에서 영향력은 6.06점으로 2위, 신뢰도는 5.68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은 5.69점으로 4위, 신뢰도에서는 5.40점으로 김문수 지사와 함께 공동 1위였다. 박전대표의 경우 유일하게 영향력 평가점수와 신뢰도 점수가 동시에 높아졌다. 조사대상 10명의 정치인 중 유일하게 높은 영향력과 강한 신뢰기반을 갖춘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2011 순위	정치인	영향력		2011 순위	정치인	신뢰도	
		점수	2010 점수(순위)			점수	2010 점수(순위)
1	이명박	6.25	6.36 (1)	1	박근혜	5.68	5.40 (1)
2	박근혜	6.06	5.69 (4)	2	이명박	4.93	4.92 (4)
3	오세훈	5.16	5.79 (3)	3	김문수	4.69	5.40 (1)
4	김문수	5.06	5.82 (2)	4	오세훈	4.65	5.25 (3)
5	손학규	4.61	4.35 (7)	5	손학규	4.20	4.36 (7)
6	정몽준	4.39	4.35 (8)	5	유시민	4.20	4.63 (5)
7	유시민	4.37	4.55 (6)	7	정몽준	4.18	4.15 (8)
8	한명숙	4.05	4.58 (5)	8	한명숙	4.06	4.50 (6)
9	이회창	4.01	3.91 (9)	9	이회창	3.97	3.92 (9)
10	정동영	3.70	3.74 (10)	10	정동영	3.54	3.81 (10)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0년 지방선거로 급부상했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2011년 평가 악화 야권 주자는 대부분 신뢰도 점수 하락. 한명숙 지고, 손학규·유시민 각축

-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평가에서 급부상했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2위(5.82점), 신뢰도 공동1위(5.40점)에 올랐던 김문수 지사는 2011년 조사에서 영향력 4위(5.06점), 신뢰도 3위(4.69점)로 내려 앉았다. 한편 2010년 조사에서 영향력 3위(5.79점), 신뢰도 3위(5.25점)에 올랐던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조사에서도 영향력은 그대로 3위(5.26점)를 유지했지만, 신뢰도에선 4위(4.65점) 떨어졌다. 정몽준 전대표는 영향력 6위(4.39점), 신뢰도 7위(4.18점)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야권주자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얼마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지난해 6월 조사 당시 강원도에 칩거하던 손학규 대표는 작년 10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올 해 조사에서 영향력 평가가 높아졌다. 손 대표의 영향력 점수는 2010년 조사에서는 4.35점으로 7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61점으로 5위로 올라섰다. 신뢰도 점수는 2010년 4.36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4.20점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순위로는 유시민 대표와 함께 공동 5위로 올라 전년에 비해 두 계단 올라섰다. 최근 당대표에 취임한 유시민 대표는 영향력 평가에서 2010년 6위(4.55점)에서 2011년에는 7위(4.37점)로 한 계단 내려왔고, 신뢰도에서는 2010년 4.63점에서 4.20점으로 떨어졌지만 순위는 5위 자리를 지켰다.
- 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로는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0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야권의 차기주자로서 주목받던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에서 뒤처지는 양상이다. 2010년 영향력 조사에서 4.58점으로 5위, 신뢰도 조사에서 4.50점으로 6위였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영향력 4.05점으로 8위, 신뢰도 역시 4.06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10년 조사에 비해 영향력과 신뢰도 점수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9위에 머물렀고, 정동영 의원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야권주자들 대다수가 신뢰도 점수가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악재가 야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리더십 유형 분류: 박 전대표 유일하게 강한 영향력에 비례한 신뢰기반 갖춰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은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 낮아, 정당성 약한 파워
손학규, 유시민, 정몽준 등 후발주자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감과 저신뢰의 딜레마**

- 영향력 점수와 신뢰도 평가점수를 교차하여 각 정치인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유형화 해보면 영향력과 신뢰도가 함께 높은 강한 리더십 유형, 영향력은 크지만 신뢰도가 낮아 정당성 위기에 취약한 리더십 유형, 영향력은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도덕주의적 리더십 유형,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낮은 존재감 약한 취약한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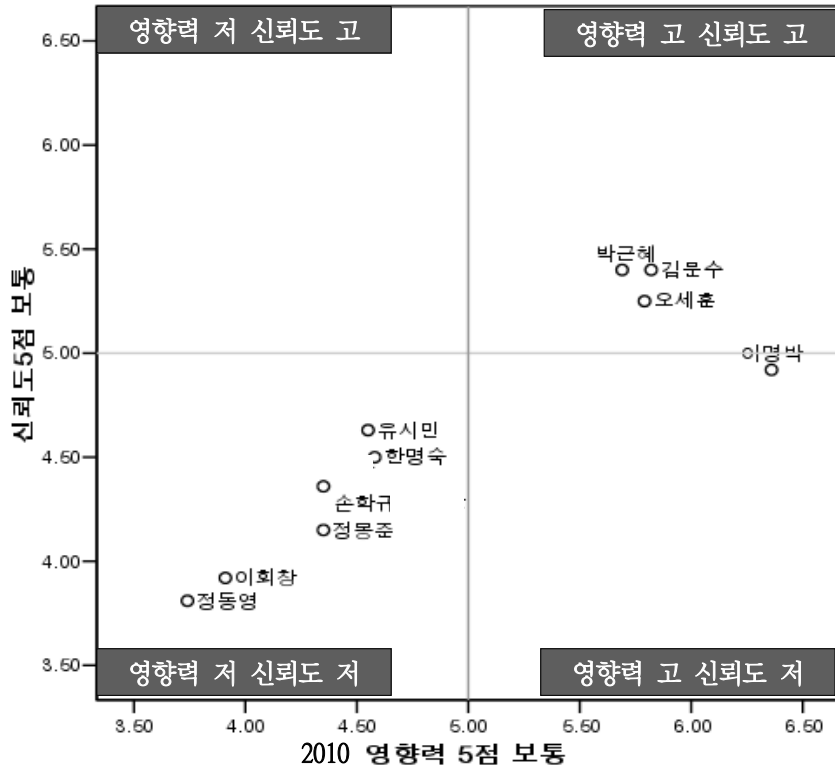
-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높은 영향력과 강한 신뢰기반을 갖춘 유형으로 평가받았지만 취임 이후 2009년부터는 영향력에 비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평가받아 왔다. 박 전대표는 2007년 조사 이래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해왔다.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안정된 신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된다[표2].
- [그림1]의 2010년 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한나라당 지지층의 기대를 모으면서 박전대표와 함께 강한 영향력과 함께 높은 신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신뢰도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져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리더십 유형으로 분류된다[그림2].
-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영향력 점수나 신뢰도 점수가 공히 중간 수준인 5점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아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한다.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리더로서의 존재감도 약하고, 진정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 유형이다.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대표, 정몽준 전 대표가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명숙 전총리, 이회창 대표, 정동영 의원은 최하위권 그룹으로 평가된다.
-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평가나 신뢰도 인식은 서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 파워와 정당성은 상호보완적인 정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이 약하면서 신뢰받는 도덕주의적 리더십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반대로 영향력은 큰 데 신뢰도가 약한 리더십은 진정성의 위기에 취약하다.

[표2] 2007년-2011년 신뢰영향력 점수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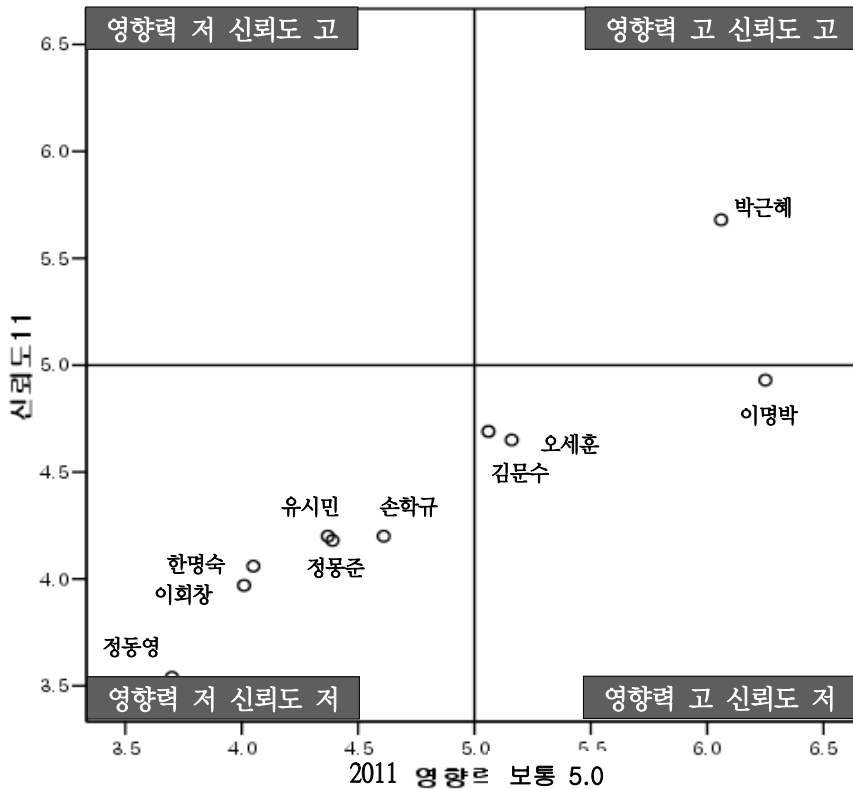
	영향력								신뢰도							
	2011		2010		2009		2007		2011		2010		2009		2007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김문수	5.06	4	5.82	2					4.69	3	5.40	1				
박근혜	6.06	2	5.69	4	5.61	2	5.70	2	5.68	1	5.40	1	5.01	1	5.38	2
손학규	4.61	5	4.35	9			3.19	6	4.20	6	4.36	8			3.15	5
오세훈	5.16	3	5.79	3					4.65	4	5.25	3				
유시민	4.37	7	4.55	8	3.79	9	2.16	11	4.20	5	4.63	5	4.04	4	2.16	11
이명박	6.25	1	6.36	1	6.15	1	6.24	1	4.93	2	4.92	4	4.27	3	5.64	1
이회창	4.01	9	3.91	11	3.89	8	3.69	5	3.97	9	3.92	11	3.69	6	4.17	3
정동영	3.70	10	3.74	12	3.27	10	2.81	8	3.54	10	3.81	12	3.26	9	2.76	9
정몽준	4.39	6	4.35	10	3.95	7			4.18	7	4.15	10	3.55	7		
한명숙	4.05	8	4.58	7			2.65	10	4.06	8	4.50	6			2.96	6
정세균			4.61	6	4.11	4					4.37	7	3.84	5		
정운찬			4.67	5							4.29	9				
김대중					4.87	3	4.48	3					4.74	2	3.96	4
김영삼							2.75	9							2.63	10
노무현							3.79	4							2.93	7
김형오					4.02	5							3.38	8		
박희태					4.01	6							3.18	10		
이해찬							2.95	7							2.80	8



[그림1] 2010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그림2] 2011 파워정치인 영향력·신뢰도 평가(점)



【대선 레이스 본격화되나?】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와 지지이유 : **朴 36.9% > 유 10.6% > 오 8.1% > 한 6.4%**

- 여당 주자는 인물 요인, 야당은 이념 요인이 주된 지지요인

- 3월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전월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36.9%였고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10.6%로 2위, 오세훈 시장, 한명숙 전총리가 각각 8.1%, 6.4%로 3위, 4위였다. 5위가 김문수 지사로 5.2%였다.
- 야권에서는 친노를 표방한 국민참여당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친노 성향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세와 손학규 대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현재 유시민(3.4%p), 한명숙(2.0%p), 김두관 지사(0.9%p) 등 친노 인사들의 상승세가 엇보이기는 하지만 상승세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컨벤션 효과(전당대회효과)를 넘어서 야권지각 변동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한편 손대표의 경우 올 1월 조사에서 6.8%였지만 2월 조사에서 전월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6%, 이번 달에는 3.1%로 3.8%의 자유선진당 대표보다도 뒤쳐져 7위에 머물렀다. 지난 10월 당대표 선출 이전의 지지율로 회귀한 셈이다. 손대표에 이어 정몽준 전대표(3.0%), 정동영 전 장관(2.6%), 김두관 지사(2.0%)가 뒤를 이었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순위	2011년			2010년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박근혜	1	36.9	36.0	31.9	28.5	30.8	34.3	28.6
유시민	2	10.6	7.2	9.7	8.7	8.5	6.9	10.6
오세훈	3	8.1	5.7	6.7	6.7	4.1	4.3	7.2
한명숙	4	6.4	4.4	6.6	4.5	3.8	6.6	6.8
김문수	5	5.2	4.5	3.9	5.8	4.4	4.7	6.1
이회창	6	3.8	2.9	3.6	3.8	5.3	3.4	4.6
손학규	7	3.1	3.6	6.8	4.9	5.8	5.7	6.1
정몽준	8	3.0	3.0	4.1	3.3	2.7	2.9	3.1
정동영	9	2.6	2.2	2.8	2.9	3.1	3.7	4.2
김두관	10	2.0	1.1	1.5				
정세균	11	0.4	0.7	0.5	0.3	0.1	0.3	1.0
이재오	12	0.3	0.3	1.4	0.0	0.8	1.0	0.4
다른후보	13	0.7	2.1	1.3	2.7	2.1	2.4	8.4
모름/없음	-	17.1	26.5	19.2	28.0	28.5	23.8	12.8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그렇다면 각 예비주자 지지자들이 이들은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여권의 대선주자의 지지자들은 인물요인이, 야권 주자 지지자들의 지지요인은 주로 이념요인이 꼽히고 있다. 각 지지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를 선택한 요인을 물어 본 결과 박근혜 전대표 지지자 중 44.2%, 오세훈 시장 지지자 중 50.1%, 김문수 지사 지지자의 46.4%, 이회창 선진당 대표 지지자의 41.7%가 ‘개인의 능력과 경력’ 과 같은 인물 요인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주로 이념요인을 1순위로, 인물 요인을 꼽은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난다. 유시민 지지자의 42.1%는 이념요인을, 개인 능력을 꼽은 응답은 22.8%에 그쳤다. 반면 한명숙 지지자의 39.0%가 이념요인을 33.7%가 인물요인을 꼽았고, 손학규 대표 지지자 중에서도 35.3%는 후보자의 이념을, 34.8%가 인물요인을 꼽았다.
- 소속정당이나 당선가능성 등은 현재 지지후보 선정에 주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대선예비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경우 소속정당 요인을 꼽은 응답이 16.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 전대표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2.3%로 다른 주자들에 비해 대세론에 의한 편승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표4] 차기 대선후보 지지후보 별 지지요인 (%)

지지 후보	이유	소속정당	개인능력	이념	정책	당선 가능성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박 근 혜	(295)	3.4	44.2	17.8	13.6	12.3	7.4	1.3	100.0
유 시 민	(85)	3.4	22.8	42.1	19.6	2.7	9.5	0.0	100.0
오 세 훈	(65)	2.9	50.1	22.0	15.1	4.8	5.0	0.0	100.0
한 명 숙	(51)	4.0	33.7	39.0	19.3	2.0	2.1	0.0	100.0
김 문 수	(42)	4.8	46.4	19.9	21.6	0.0	7.4	0.0	100.0
이 회 창	(30)	2.9	41.7	23.3	12.6	9.9	0.0	9.6	100.0
손 학 규	(25)	16.5	34.8	35.3	8.5	4.9	0.0	0.0	100.0

여야 구도 하에서의 후보 적합도 : 부동층 줄면서 대선후보 선호 움직임이 시작해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5.0% > 오세훈 12.1% > 김문수 9.9% > 정몽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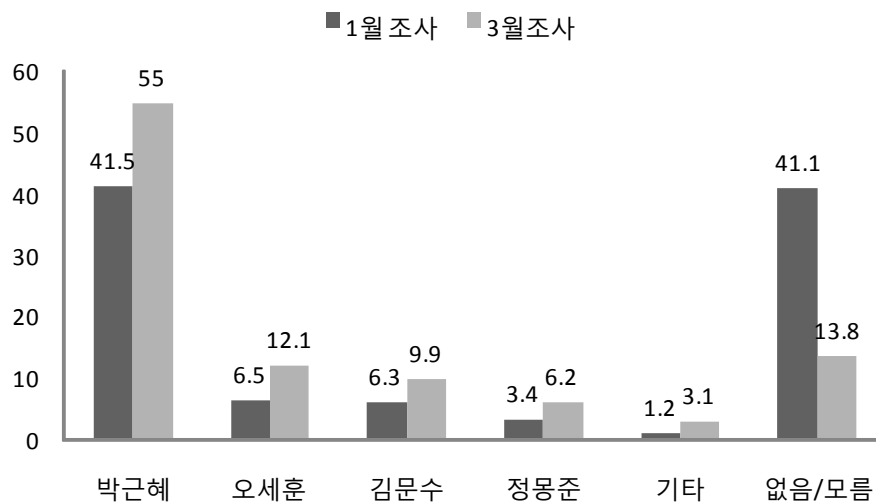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박근혜 57.8% > 오세훈 14.7% > 김문수 10.0% 순

- 정당과 상관없이 차기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이러한 질문방식에서는 주로 정당요인보다는 개인 인물 요인에 의한 대선지지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권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의 맞대결 구도를 통해 뒤쳐진 전세를 역전하려고 하고 있다.



- 올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대선 1년을 앞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차기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후보는 현재 박근혜 전대표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야권의 경우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대표 중 하나의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 우선 전체 응답자에게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한 후보를 물어본 결과 2011년 1월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를 꼽은 응답은 41.5%로 과반수에 못 미치고 오세훈 시장 6.5%, 김문수 지사 6.3%였고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1.1%나 되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3월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대표로의 강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박 전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55.0%였다. 오세훈 시장 12.1%, 김문수 지사 9.9%, 정몽준 전대표 6.2%로 나타났다. 없음/모름이라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고 기존 차기주자들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주로 박전대표 지지로 쏠렸음이 확인된다.

[그림3]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 박전대표를 꼽은 응답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대구/경북이 73.0%, 충청권 60.6%, 부산경남이 57.9%로 높았고, 서울 48.2%, 인천/경기 50.2%, 광주/호남 53.2%로 역시 수도권과 호남에서 박전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념적으로 봐도 전 계층에서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 전대표를 선호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보수층에서 56.6%, 중도층에서 57.8%, 진보층에서도 52.5%가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전대표를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 정당지지별로 보면 역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박전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오세훈 시장이 14.7%, 김문수 지사 지지가 10.0%, 정몽준 전대표가 5.8%를 얻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박전대표를 뽑은 응답이 51.8%, 오세훈 시장을 뽑은 응답이 9.4%, 김문수 지사를 뽑은 응답이 9.0%였고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다.

[표5] 계층별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한나라당 대선후보	사례수 (명)	김문수	박근혜	오세훈	이재오	정몽준	홍준표	다른 후보	없음 모름
전체	(800)	9.9	55.0	12.1	0.8	6.2	2.3	0.5	13.3
거 주 지									
서울	(168)	14.2	48.2	15.4	1.9	4.9	3.1	0.0	12.3
인천/경기	(225)	16.2	50.2	12.6	0.0	5.3	0.4	0.9	14.4
대전/충청	(80)	7.0	60.6	12.1	0.0	3.7	2.9	1.1	12.6
광주/호남	(82)	7.3	53.2	7.1	1.2	9.3	3.6	0.0	18.3
대구/경북	(83)	2.3	73.0	6.9	1.1	6.2	1.2	0.0	9.4
부산/경남	(127)	3.9	57.9	14.5	0.8	9.3	2.3	0.8	10.5
강원/제주	(33)	0.0	58.3	8.3	0.0	5.2	8.4	0.0	19.8
이념성향									
진보	(191)	8.6	52.5	11.1	1.1	8.0	5.7	0.0	13.0
중도	(324)	10.5	57.8	10.8	0.6	5.6	1.4	0.0	13.2
보수	(238)	11.2	56.6	13.9	0.8	6.8	1.2	0.8	8.8
정당지지									
한나라당	(307)	10.0	57.8	14.7	0.3	5.8	1.3	0.3	9.7
민주당	(178)	11.1	52.5	12.9	1.0	7.2	2.7	0.0	12.6
군소정당	(109)	9.2	57.5	8.7	2.9	5.6	4.7	0.8	10.6
무당파	(206)	9.0	51.8	9.4	0.0	6.3	2.0	0.9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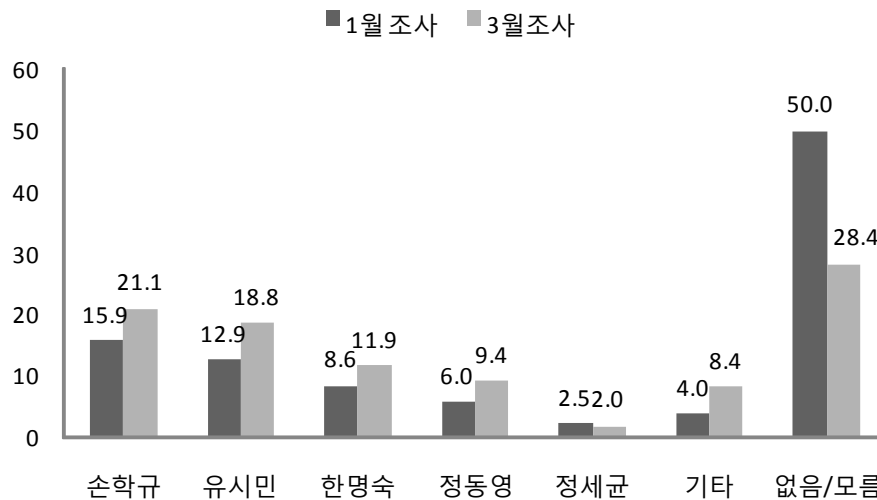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 손학규 21.1% > 유시민 18.8% > 한명숙 11.9% 순
한명숙 전총리 지지층의 향방과 미결정층 층이 캐스팅 보팅 역할 할 것.

- 정당구분 없이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선주자를 모두 불러준 후 선택하는 예비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3.1%로 7위에 머물렀던 손학규 대표지만 야권단일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1%가 다른 야권 주자들을 누르고 1위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선택요인에서도 확인되듯이 손학규 대표의 경우 역시 최대 야당의 대표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18.8%의 지지를 받아 근소한 차로 2위, 대선레이스에서는 비켜서있는 한명숙 전총리가 11.9%로 나타나 정치적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영 전대표가 9.4% 정세균 대표가 2.0%였고, 노회찬, 이정희 대표 등은 2%에도 못 미쳤다.
- 지난 1월 조사에서 야권주자만을 선별하여 야권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1월에 비해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50.0%에서 30.5%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들의 선택이 특정 후보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정동영 의원등 차기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고르게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선호를 계층별로 보면 우선 서울, 호남, 대구/경북지역에선 손학규 대표가 우세하고, 대전/충청, 부산/경남지역에선 유시민 대표가 앞서고 있다. 서울에선 손학규 대표 23.4%, 유시민 대표가 16.0%로 나타났고, 광주/호남에서는 손학규 대표 24.1%, 유시민 대표 8.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손학규 대표 24.4%, 유시민 대표 21.2%로 손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인천에서는 각각 19.8%, 20.6%로 비슷하다. 대전/충청권에선 반대로 손대표 15.8%, 유시민 대표 21.0%, 부산/경남에선 손 대표 19.6%, 유시민 대표 25.1%로 유 대표가 우세했다.
-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손 대표 선호가 23.7%, 유시민 대표가 17.4%, 중도층에선 손학규 대표가 20.7%, 유시민 대표가 18.8%로 손대표가 유리했고, 진보층에선 손대표 19.6%, 유시민대표가 24.7%로 앞섰다.
- 정당지지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26.5%가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고, 19.4%만이 유시민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군소정당 지지층이나 무당파 층에선 반대로 유시민 대표 지지가 손학규 대표 지지를 능가하고 있다.
- 손학규 대표의 경우 서울 및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유시민 대표의 경우 충청/부산/경남 지역지지 및 이념적 진보층, 군소진보정당에서 유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양자간의 지지규모는 전반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 레이스에

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서도 야권 단일후보로 11.9%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명숙 지지층과 28.4%에 달하는 미결정층(없음/모름)의 향방이 이후 야권후보 단일화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6] 계층별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야권단일후보 대선후보	사례수 (명)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정세균	한명숙	다른 후보	없음 모름
전체	(800)	21.1	18.8	9.4	2.0	11.9	8.4	28.4
거 주 지								
서울	(168)	23.4	16.0	11.8	1.8	11.7	7.6	27.7
인천/경기	(225)	19.8	20.6	7.4	1.7	11.8	9.8	28.9
대전/충청	(80)	15.8	21.0	9.3	2.8	9.3	10.2	31.6
광주/호남	(82)	24.1	8.6	15.4	1.1	19.9	9.0	21.9
대구/경북	(83)	24.4	21.2	7.2	4.6	6.8	2.4	33.4
부산/경남	(127)	19.6	25.1	7.7	1.6	12.8	8.9	24.3
강원/제주	(33)	20.5	8.9	8.2	0	9.4	12.7	40.3
이념성향								
진보	(191)	19.6	24.7	12.9	1.5	12.7	8.7	19.9
중도	(324)	20.7	18.8	9.7	1.5	14	8.0	27.3
보수	(238)	23.7	17.4	7.3	3.4	10	8.5	29.7
정당지지								
한나라당	(307)	23.7	10.7	9.6	3	6.6	7.7	38.7
민주당	(178)	26.5	19.4	16.9	2.7	16.7	7.2	10.6
군소정당	(109)	14.2	36.7	5.6	0.8	19.9	14.5	8.3
무당파	(206)	16.1	20.7	4.7	0.5	11.4	7.5	39.1



【주요 현안】 - 일본 지진 사태와 원전 안전도

- 지난 3월 11일 강도 9.0의 대지진과 연이은 쓰나미로 일본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는 물론 원전의 폭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무엇보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본 원전의 위험성이 노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높은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유례없는 인도적 지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론이 대두되는 가하면 이번 지진사태 수습 와중에도 24일 일본의 독도영토권을 주장한 중등 사회교과서 검토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지진 성금 모금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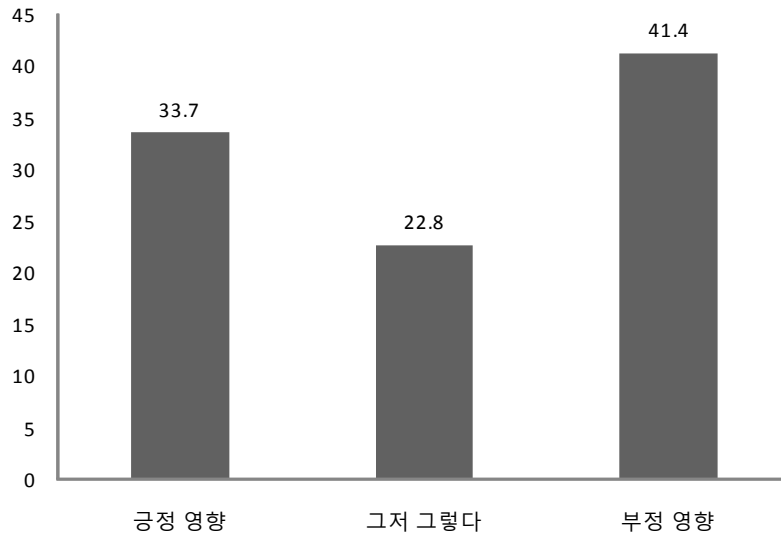
일본 대지진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33.7%, 그저 그렇다 22.8%, 부정적 효과 41.4%, 고학력/젊은 층은 비판적

- 우선 일본 대지진과 원전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처럼 일본산업 생산의 감소가 대체효과를 가져와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하면, 일본 부품산업의 부품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면 일본 부품산업에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해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3월 24일 발표처럼 일본 지진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일본지진 여파가 한국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3.7%(매우 긍정적 6.3%, 대체로 긍정적 27.4%),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2.8%,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1.4%(대체로 부정적 34.1%, 매우 부정적 7.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 주목할 점은 세대별, 학력별로 인식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젊은 세대, 고학력층일수록 컸다. 20대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8%, 30대에선 49.2%로 과반에 달했지만 40대에선 38.3%, 50대에서 32.2%, 60대 이상에선 31.6%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 층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은 31.4%에 불과했지만, 고졸 층에서는 36.5%, 대재 이상 층에서는 47.1%나 되어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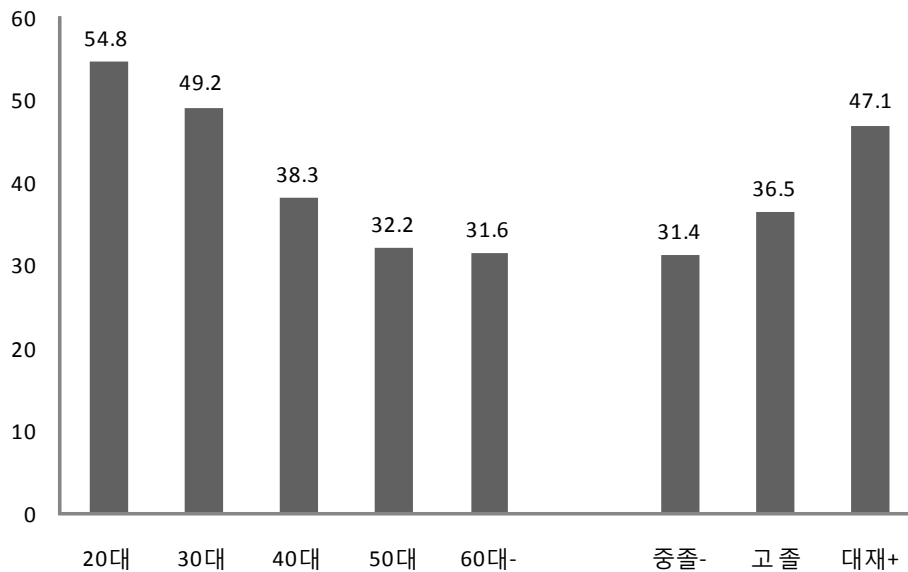


[그림5] 일본 대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6] 세대별, 학력별 일본 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식: 부정 전망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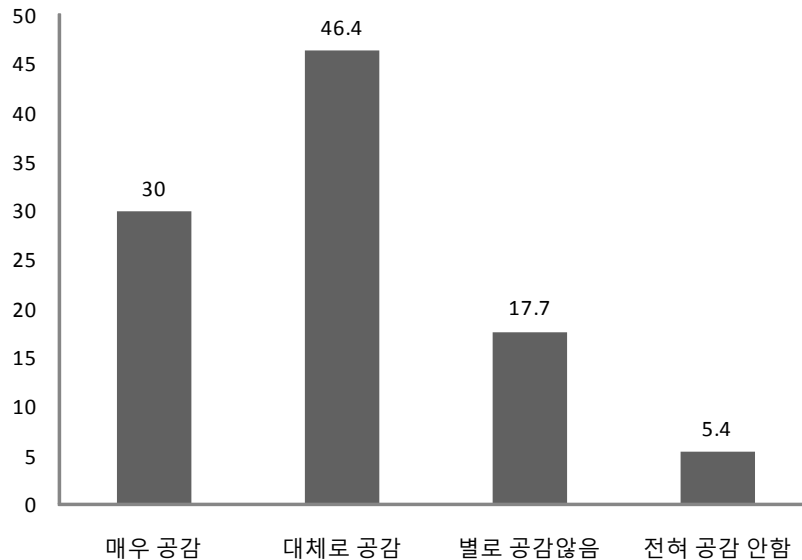
일본 지진 지원성금 모금 공감 높지만 한일관계 전망은 유보적 “일본지진 피해 구호성금 및 정부 지원” 공감 76.4%

- 현재 일본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과 정부의 구조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 교과서 검토 소식 이후에도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30.0%,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46.4%로 무려 7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반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는 의견은 17.7%,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는 의견은 5.4%로 부정적인 응답은 23.0%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는 전 계층에서 고르게 높았다.

[그림7] 한국에서의 일본 지진 성금 모금 및 정부의 인력지원에 대한 공감도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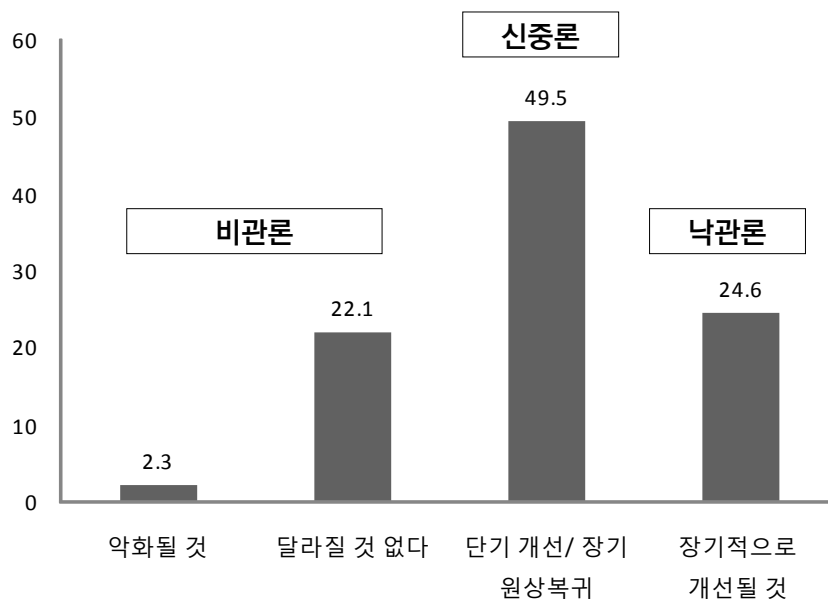
한일관계

“나빠지거나 현상유지” 24.4%, “단기적으로는 호전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 49.5%,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24.6%

- 그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크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3%였고 ‘지금까지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22.1%로 24.4%는 나빠지거나 좋아질 것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과반에 가까운 49.5%의 응답자들은 ‘당분간은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24.6%만이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을 했다. 전체적으로 신중론이 고르게 높은 가운데 세대별, 학력별로 입장차이가 확인된다.
- 20대에선 앞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지거나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28.0%, ‘단기적으로는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56.2%,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15.8%에 그쳤다. 30대에선 비관론이 20.4%, 신중론이 56.0%, 낙관론이 23.0%였고, 40대에선 비관론 26.2%, 신중론이 53.1%, 낙관론이 20.1%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비관론이 28.0%, 신중론도 38.9%로 낮은 반면 낙관론은 33.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비관론은 20.0%, 신중론은 41.6%였지만 낙관적 전망은 32.5%로 나타났다.

-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 층에서 비관론이 많아 32.2%가 나빠지거나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단기적으로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35.4%,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25.1%에 불과했다. 고졸층에서는 비관론이 21.0%가 비관적 전망을, 54.2%가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낙관적 전망은 역시 24.8% 수준에 그쳤다. 대재이상층에서는 비관적 전망은 24.1% 수준이었고, 신중론이 51.5%, 낙관론은 24.2% 수준이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강한 비관론이, 학력이 높을수록 신중론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8] 한일관계 전망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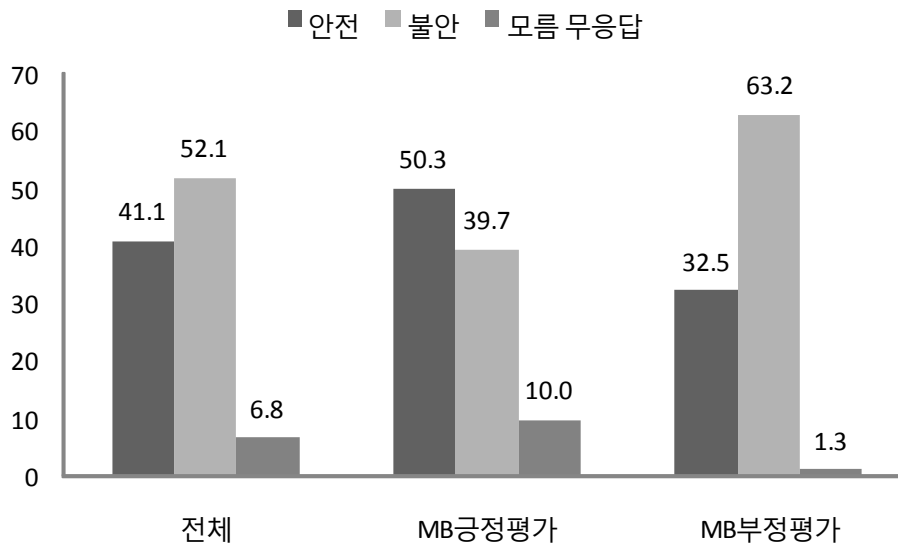
한국 원전은 안전한가? “안전하다” 41.1% 대 “안전하지 않다” 52.1%

“한국 원전 안전하다” MB 지지층 50.3% 대 MB 비판층 32.5%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크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여론은 41.1%(매우 안전 2.4%, 대체로 안전 38.7%)에 그쳤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과반인 52.1%(별로 안전하지 않다 43.4%, 전혀 안전하지 않다 8.8%)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의 태도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지지층에서는 50.3%가 안전하다고 답하고 39.7%만이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불신층에서는 32.5%만이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고 답하고, 무려 63.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 현 정부 들어와 미 쇠고기 수입, 천안함 침몰 사건 등 국가안보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왔는데 원전 문제 역시 전문가 집단의 평가나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책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소통 및 설득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9] 한국 원전 안전도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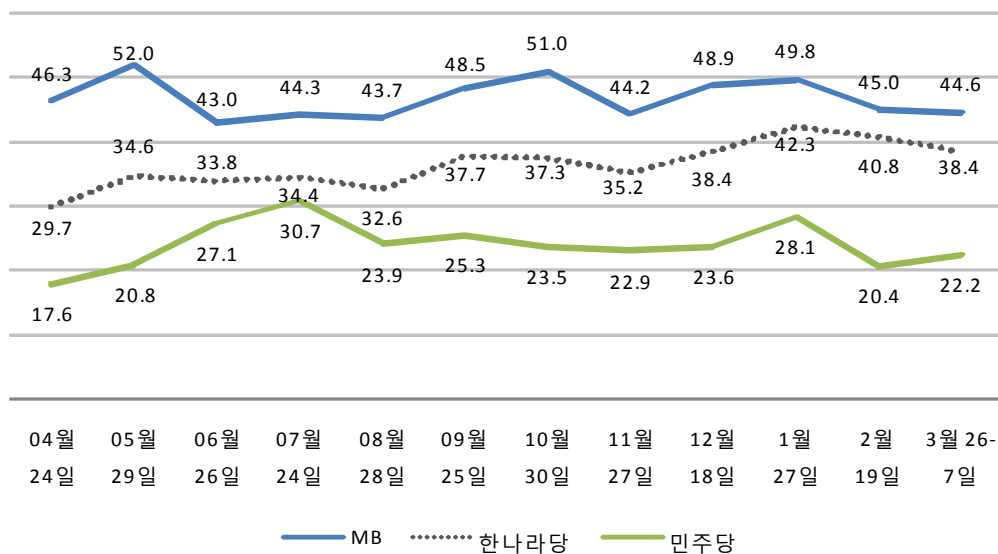
【주요 정치 지표】

[대통령 국정지지율] 3월 44.6%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 38.4% , 민주당은 22.2%

- 3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44.6%로 2월에 이후 국정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아덴만호 구출 작전 등으로 연초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물가불안 등 민생현안과 최근 군 비리 사건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의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 3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38.4%, 민주당 지지율은 22.2%로 지지율 격차가 16.2% 포인트로 2월 조사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면서 3.7%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양당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으로는 연평도 포격 이후 민주당의 대북안보정책과 상이한 대북강경여론이 고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복지론 등 급격한 좌향좌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0]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지지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

연평도 포격 및 민주당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지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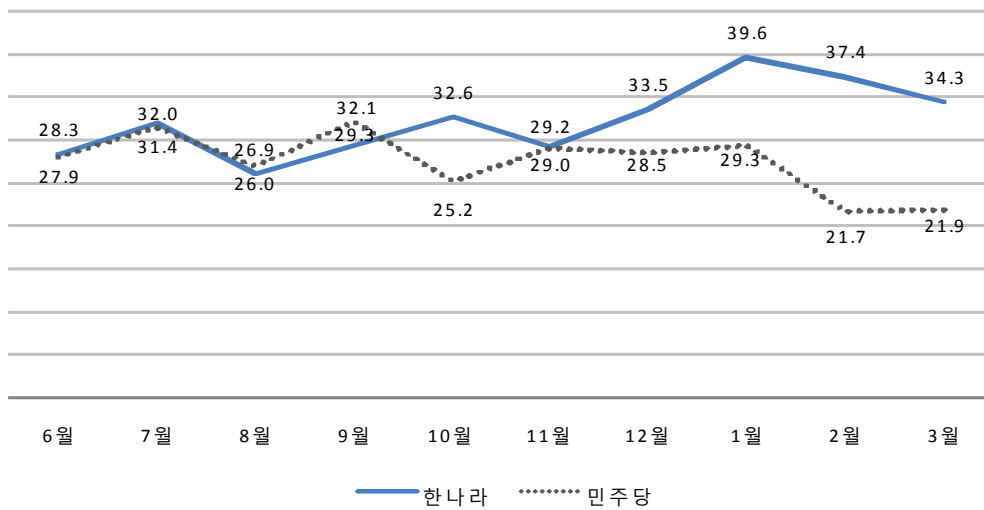
- 실제로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패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1월 전후까지만 해도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이후 11월 연평도 피격사건과 민주당의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 11월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는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34.3%(3월)로 안정적으로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로 29.0%(11월)→28.5%(12월)→29.3%(1월) 정체되다 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7% 수준까지 떨어졌고 3월 조사에서도 2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11] 중도층에서의 여-민주당 지지율 격차 변화(2010년 6월~2011년 3월)(%)



[표7]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3월~2011년 2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기타	무당파*
3/27	34.5	23.1	1.5	4.9	2.5	0.4	2.2	1.5	4.9**	24.4
4/24	29.7	17.6	3.7	5.4	0.7	0.9	0.8	1.7	12.2	27.3
5/29	34.6	20.8	2.1	4.0	0.7	0.2	1.8	3.2	2.8	29.7
6/26	33.8	27.1	2.5	4.7	1.8	0.1	2.4	4.4	3.2	20.0
10년 7/24	34.4	30.7	2.2	5.7	0.8	-	1.3	4.2	1.9	18.8
8/28	32.6	23.9	1.7	4.2	0.1	0.2	1.2	2.4	1.4	32.1
9/25	37.7	25.3	2.1	5.8	0.6	0.2	1.7	3.0	2.6	20.9
10/30	37.3	23.5	1.6	5.8	0.1	0.4	1.0	3.2	1.4	25.7
11/27	35.2	22.9	1.5	3.7	0.6	0.4	2.5	3.8	1.9	27.6
12/18	38.4	23.6	1.8	5.6	0.2	0.2	1.5	2.8	2.0	23.8
11년 1/29****	42.3	28.1	1.3	2.4	-***	0.4	1.4	2.1	1.5	20.4
2/19	40.8	20.4	2.2	4.2	0.9	0.4	1.1	2.4	1.2	26.5
3/26-7	38.4	22.2	2.3	4.3	0.2	0.5	1.5	3.4	1.3	25.8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삼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 2011년 1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1년 3월 26일-27일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에 맞게 층화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3.5%
조사방법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